



사연

1. 1995년 11월, 2녀의 교통사고로 약 2개월 의식불명과 회복, 그후 약 1년간 병원생활. 어머니와 3남이 번갈아 가면서 간호함.
2. 1996년 말쯤, 2녀의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약 1.5억 수령. 그중 3.5천만원은 변호사비용 및 병원비로 사용함.
3. 1996년~1998년. 2녀의 재활치료를 위해 어머니와 3남이 최선을 다함.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장거리 재활치료를 많이 함.
4. 1998년 2녀는 신체장애3급 확정 판결됨.
5. 1998년. 1남의 대출금 1.7천만원과 2녀의 남은 보상금(약 5~6천 정도인듯 함) 및 담보대출 등으로 현재의 母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축함. 전세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함. 당시 토지 매입비용은 기억이 안나고, 건축비는 약 2.5억 정도로 기억함.

문의

1. 2녀 왈 : 母가 토지매입당시 2녀의 보상금 전액을 투자 하였으므로 母명의로의 주택은 2녀가 전부 상속받는데 맞다고 주장함.
2. 父의 타계로 인해, 父명의로의 주택을 母에게 상속하기 위해 상속인 모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1번의 사유로 2녀가 인감증명서 등 서류발급을 거부하고 있음.
3. 상속인이 4인 이므로, 4등분하여 2녀에게 1/4 몫을 주고, 父명의로의 주택을 母명의로 하고자 함.

질의) 2녀에게 4분의1이 아닌 최소한의 몫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법이 있나요?